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❷ 강에 금덩이 던진 형제



▶ 한줄요약
형제들이 싸움할 때 어른들이 이야기한 '길 가던 형제가 주운 금덩이를 물에 던진 옛날이야기'는 사실 〈대지도론〉 비유담인 '형제투금'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국에는 언제 전래된지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열전 등에 민담으로 소개된다.

# 비움·보시 가르침, 韓구전설화로

어린 시절 형제간에 혹은 자매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 혹은 할머니께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길 가던 형제가 주운 금덩이를 물에 던진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을 것이다.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한참 늦둥이인 필자는 먹을거리도 새 장난감도 모두 당연히 막내인 나의 것이었다. 나누고 함께 쓰는 것에 미숙했던 나는 금덩이를 강에 던진 형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금덩이가 너무도 아깝게 여겨졌었다. 형제간의 우애가 핵심인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일까? 우리에게 전래동화 혹은 설화로 익숙한 이 이야기 역시 먼 인도에서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기원한다.

'형제투금'(兄弟投金)으로 불리는 이야기의 가장 이른 기록은 402년 서역북로에 위치한 쿠차국(龜玆國)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대지도론〉(大智度論) 권22에서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자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며 더 많은 깨우침과 지혜를 얻기를 바랬다. 이에 석가께서 재물과 보시에 관한 인연이 얽힌 여러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재물은 번개와 같고 갖가지 번뇌와 죄업의 인연이므로 지혜와 착한 법을 행하여야 열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때문에 재물은 오히려 스스로 버려야 하는 것이므로, 기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여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셨다.

**어떤 두 형제가 각각 10근(斤)씩의 금을 지고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다. 형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우를 죽이고 금을 다 빼앗지 않는 것일까. 이 넓은 길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다. 아우 역시 "형을 죽이고 금을 다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제가 서로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보는 눈짓이 달랐다. 곧 형과 아우는 스스로 깨닫고서 도리어 뉘우치는 마음을 내며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다.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형제로 태어났으면서 조그마한 금 때문에 악심을 일으키고 있다니"라고 했다.**

**잠시 후 형제가 깊은 물가에 이르자 형은 금을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그러자 아우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우도 이내 금을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형도 "참으로 잘했다"라고 동생을 칭찬했다. 그리고는 형제가 서로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했는지 묻자, 동시에 대답하기를 "나는 이 금 때문에 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어 한 사람을 죽이려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버렸기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 두 형제의 말이 같았다. 재물은 악한 마음의 인연이 되니, 언제나 스스로 버려야 한다. 그러니 하물며 보시를 하면 큰 복을 얻게 되거늘 어찌 보시하지 않겠는가?**



그림①. 2017년 서울시의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조형물. 형제투금의 이야기를 담아 제작됐다. 한국 민담 중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비유담이다.

위의 〈대지도론〉의 '형제투금'은 재물은 악연을 쌓기 쉬우니, 스스로 비우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투금'은 언제부터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 한국에 까지 전래된 유래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高麗史) 권121 열전 효우(孝友)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양천현 산천(陽川縣山川) 공암진조(孔巖津條)에 기록된 이야기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高麗 恭愍王) 때 당시 어떤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두 덩이를 주워,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양천강(陽川江,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공암진 근처)에 이르러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던 중에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렸다. 형이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답하기를, "제가 평소 형님을 깊이 사랑하였는데, 이제 금을 나누고 보니 문득 형을 꺼려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인지라 강에 던져버리고 깨끗이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형도 말하기를, "너의 말이 정말 옳다"라고 하면서 역시 금을 물에 던져버렸다. 그때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모두 우매한 백성들인지라 두 사람의 이름과 마을을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 이 강을 투금뢰(投金瀨)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지도론 비유담인 '형제투금'**
**고려사 등에 민담으로 소개돼**
**비움 대신 유교적 형제애 강조**
**中에 전해져 명대 소설로 탄생**
**가담항설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14세기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재물의 무상함과 보시의 중요성은 묻히고, 당시에 유행한 주자학(朱子學)적 윤리에서 중요하게 여긴 유교의 이념에 맞추어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명나라 때 진요문(陳耀文)이 엮은 〈천중기〉(天中記) 권50 금불상물조(金不祥物條)에 "…朝鮮國都中 有兄弟二人…"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있었던 두 형제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 설화는 인도에서 전래되어 5세기 경 한역된 〈대지도론〉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륙에서 민간에 전파되지 못하다가 오히려 천년 후 조선에서 중국의 명나라로 전해지는 특이한 전승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나라에 전해진 '형제투금'은 소설 '한후룡전'(韓厚龍傳)의 기원이 된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명나라 성화연간 패서땅에 장님 한후룡(韓厚龍)과 앉은뱅이 임허영(林許榮)이 이웃으로 살았다고 한다. 한후룡과 임허영은 길에서 황금을 주웠으나 서로 양보하다가 길에 놓고 갔는데, 한 상인이 도적에게 상품을 빼앗겨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황금을 주워 가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상인이 가서 보니 황금 대신 큰 뱀이 있어 칼로 죽이고 돌아와, 어른을 속였다며 꾸짖었다. 후룡과 허영이 다시 가 보니, 그 황금이 두 동강이 나 있어 하늘이 주는 것이라 여기고 한 덩어리씩 나누었다.

그들은 황금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불상의 금칠을 하는 데에 시주하고, 부처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발원하였다. 그날 밤 자다가 깨어나 보니 장님 한후룡은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뱅이 임허영은 다리를 펴고 걷게 되어 산사에 머물면서 병서와 무술을 익혔다고 한다. 어느 날 글을 읽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 후룡과 허영의 전생담(前生譚)을 듣고 신선에게 갑주와 보검을 얻었다. 이후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한 한후룡은 좌승상에 임허영은 우승상에 오르게 되고, 부귀로 일세를 누리었다는 이야기이다.

명대 소설의 기원이 된 '형제투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 있는 설화였는지는 전국에서 조금씩 변형된 이야기가 두루 구전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강원도 양양군·강원도 횡성군·충남



그림②. 〈고려사〉 열전 호우조. 형제 투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불교적 가르침 대신 유교적 가족애를 강조했다.

부여군·충남 공주군·전남 승주군·경북 대구시 원평도 등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인물이 매우 사실적으로 남아있다.

〈대지도론〉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러 지역의 구전설화들의 공통점은 두 형제와 금덩어리라는 두 가지이다. 이후 전래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됐다. △금을 버린 사람이 형에서 아우로 △금을 길에서 줍지 않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길을 떠남 △서로에게 나쁜 마음이 들자 금덩어리가 누런 구렁이로 변함 △형제가 힘을 합쳐 구렁이를 물리침 △죽은 구렁이가 두 덩어리의 금으로 나눠짐 △둘이서 한 덩어리씩 나눔 등이다.

짧게 요약하였지만 부처님의 비유담에서 한국의 전통 설화로 자리잡는데, 천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비유담(譬喩談) 중의 하나로 들어온 '형제투금'은 처음에는 불교에서의 보시와 공덕의 가르침을 위해서 전파됐으나, 이후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한국의 전통 설화 '우애 좋은 형제', '구렁이로 보인 금덩이', '지성이와 감천이', '어도양주(魚吐兩珠)' 그리고 중국의 고전소설 '한후룡전'이다.

강서한강공원에 가면 '형제투금'에 등장하는 금덩이를 든 두 형제와 배가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다. 단순히 설화 혹은 동화의 한 장면을 표현한 볼거리가 아닌, 그 기원이 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에 다다르기 위한 비움과 보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으로서 보시를 닦은 이는 이름이 시방에 가득히 차고 지혜로운 이의 애경(愛敬)을 받으며, 대중에 들어가도 두려워함이 없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나며, 오랜 뒤엔 반드시 열반을 얻는다."** – 〈대지도론〉 권22中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